

“자비행으로 佛法 가르침 대중에 회향”

창립 20주년 맞은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도연·이하 총동문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무료급식을 통한 자비 나눔은 물론 문화 표교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는 범어사 수행단체의 주춧돌이라고 할만큼 그 역할이 눈부시다. 8월 6일 무료급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총동문회 사무실을 찾았다.

김도연 총동문회장은 “동문회 20년 역사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은 무료급식이라 할 수 있다. 총동문회 창립 후 바로 그 다음 해에 배운 바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다. 무료급식은 나눔뿐 아니라 총동문회 식구들이 언제나 편하게 방문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폭염 속에서도 급식을 준비하는 총동문회 회원들은 무료급식소를 위해 마련된 공양간에서 독거어르신 1000여명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폭염 속 뜨거운 가스불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들지만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이런 정성스러운 기운 탓일까? 부산 급정구 뿐 아니라 부산 외곽지역 더 나아가서는 경남 지역에서도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어르신들이 올 정도라고.

회원들은 자신들의 사비를 모아 매주 목요일마다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급식 당일날 새벽에 장을 보는데 재료는 최고급

으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무료급식을 진행해온 것이 올해로 19년이 되었다. 메르스 사태 때 단 두 번을 쓴 것을 제외하고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다. 신뢰와 정성으로 만든 무료급식은 지역 나눔의 상징이 됐다.

김 회장은 “19년 동안 이어온 무료급식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자가 아닌 기업인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고 뜻이 있는 분들이 익

95년부터 불교대 졸업생들이 주축

무료급식 19년 이어오며 자비행

탄탄한 조직망, 8000여 회원

범어사 수행단체의 기동 역할

명으로 마음을 전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곳”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회원들은 범어사 수행단체 곳곳에서 활동하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년 동안 범어사금정불교대학을 수료한 회원들 가운데 90%는 총동문회에 가입하는데 그 숫자가 8000여명에 이른다.

김 회장은 “총동문회 회원들은 범어사 수행단체인 보현회, 다도회, 합창단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능을 보시고 있



창립 20주년을 맞은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범어사역 앞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다”고 설명한다. 각 수행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범어사에서 진행되는 봉족, 개산대제, 백중 등 굿직행 행사에서 기동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연말 자비의 떡국 판매 및 사찰 기행을 통한 문화 탐방 순례,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개최하는 일일차집, 범어사 전용 순환버스 동참금 지원, 부산시민연동 축제, 독거노인 도시락 반찬 배달, 동문연합 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총동문회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집행부의 탄탄한 연락망과 가족 같은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고, 김 회장은 “기수별로 조직망을 튼튼히 해 항상 모든 행사마다 빠짐없이 연락을 한다. 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늘 편하게 오고갈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을 일 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찾아와도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귀띔한다.

총동문회는 올 가을에도 10월 25일 금정구민체육공원에서 동문가족체육대회를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회원들의 가족을 함께 초대해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앞으로 총동문회는 나눔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김도연 회장은 “요즘 복지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경봉 스님 문헌 대중에게 공개”

극락암·동국대 불교학술원 업무 협약

근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승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의 소장 문헌을 조사하고 통합화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통도사 극락암(선원장 명정)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식)은 8월 12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활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통도사 방장 원경 지종 스님, 극락암 선원장 명정 스님, 경봉문도회 회장 법산 스님,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 및 불교학술원 정승식 원장, 한상길 교수와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경봉문도회 회장 법산 스님은 “그동안 명정 스님은 스승이신 경봉 큰 스님의 자료는 작은 것이라도 버리는 일 없이 소중히 간직하고 보관해 왔다”며 “이 협약식을 통해 그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화해 생생히 살아 있는 자료로 대중에게 잘 전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경봉 스님의 일기와 편지 등 고문서를 체계화하고 연구할 수 기반이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최근 확인한 소장 문헌에 대한 전수 조사에 따르면 경봉 스님의 자료는 근대문서 뿐만 아니라 평생 수지독송하던 묵판본 경전과 의례집 등도 100여 점에 달한다”며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이 자료들을 정리 조사, 촬영하고 소문으로 들어왔던 경봉 스님의 근현대 고승들과의 교류,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과 주고받은 서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봉 스님의 문헌으로 근현대 불교 역사 뿐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생생한 발자취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봉 스님의 생전 거처였던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는 경봉 스님의 유물관을 설립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봉 스님 소장 문헌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극락암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활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경봉 스님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동명세계선센터, 명상 프로그램 진행

동명대 동명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선, 차, MBSR, 몸·마음 힐링 명상 등으로 구성된 2015년 하반기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禪)수행학교’는 9월 2일 시작해 4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초보자를 위한 심화 지도 및 강의로 진행되며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수진 스님이 직접 맡는다.

‘차(茶)로 빛나는 인성(茶)향 이야기 17기’는 이영희(세계선센터 차문화 전담교수), 정명(세계선센터 전담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9월 8일부터 4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일반인을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 ‘MBSR’도 진행된다. 개강은 9월 10일이다.

또한 몸·마음 힐링 명상은 9월 2일부터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051) 629-3582

하성미 기자

제 6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운문사, 스님과 재가자에게 총 2500만원 전달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8월 10일 운문사 경내 중무소에서 제 6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운문사 회주)과 상임이사 진성 스님(내원사 주지), 감사 운산 스님 외 30여이 사 스님들과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영조 스님과 동국대대학원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석사과정 민우 스님, 중앙승가대대학원 불교문화대학 전공 석사과정 지서 스님, 동국대대학원 불교학 전공 석사과정 최재희(명도심) 불자, 미국 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학 박사과정 김유



운문사는 8월 10일 제 6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한(연화심) 불자 등이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은 “앞으로 한국불교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달라”며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법륜비구니장학회는 비구니 스님 및 불

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불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2009년에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금 마련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해 수입금 5억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9억원 상당의 장학금이 조성된 상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사하구불교聯, 환우 어르신 생일 축하

한우리요양병원에서 잔치연 베풀어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가 8월 11일 부산 한우리요양병원에서 환우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연을 베풀고 병동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양병원에서 생일을 맞은 어르신 10여명과 병원 관계자 및 환우 어르신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는 회장 혜우 스님, 총무 송우 스님을 비롯해 사하구불교연합 소속의 스님 20여 명이 함께 공연에 참여하고 환우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날 공연에는 색소폰 및 아코디언 연주 등 흥겨운 무대 공연이 이어지자 환우 어르신들은 힘든 병원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얻었다며 즐거워했다. 이어 스님들은 병동을 방문해 직접 마련한 300인분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한우리요양병원 전기간 내과 원장은 “위로공연은 환우들이 스스로 살아 있다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 스님들이 환우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줘 치료를 위한 좋은 효과를 이끌어 낸다”며 “이렇게 찾아주시는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회장 혜우 스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얻고 건강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2천만 불자님들을 위한 불경 황금 수의!!

남이 보는 옷이 아닙니다. 온전히 불자님만을 위한 옷입니다.

고인에 대한 종교적 배려와 존중이 동반된 국내 유일의 수의 부처님의 가피로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유사제품 주의요망 신고전화 010-3071-3658

불경(황금)수의는 안동삼베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디자인 특허 원단 이므로 특허 및 디자인 저작권 침해는 사전통보없이 법무사를 통한 민, 형사고발 및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으신 고객분은 진품확인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진품확인전화 010-3071-3658

제조사 안동삼베닷컴 안동시 안기동 119번지
판매처 안동종교수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47 (별나라타워 505호)

주문 및 상담
031) 595-1237 / 010-2778-1971

성분/대마100% 원사/중국 제조/한국(안동)

[특] 2,200,000원

[일반] 1,500,000원

악수, 버선, 도포(원삼)띠, 면모에 불경경전을 황금글씨로 새겨 부처님께 믿고 의지함을 기원하였습니다.